

The May 18 Uprising's 30th Anniversary

오월의 꽃

THE FLOWER OF MAY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Baptist Coelho

박티스트 코엘료

박티스트 코엘료는 2006년 영국 버밍엄 아트 & 디자인 인스티튜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Johnson Prize Fund'를 수상했다. 같은 해 코엘료는 영국 BIAD 갤러리에서 <airfedge|air>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개인전을 열었다. 2007년에는 Art India Magazine 과 인도 델리 소재 Visual Arts Gallery가 수여하는 'Promising Artist Award'를 수상했다. 2008년에는 델리 소재 India Habitat Center에서 비주얼 아트와 관련하여 분기마다 발간하는 뉴스레터인 New Media Art for "I"의 객원 편집자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 워크숍 및 혼합매체 기반의 현장 설치예술이자 퍼포먼스인 <중이비행기 프로젝트>를 모바이, 라다크, 스위스 및 태국의 참가 학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두 번째 개인전 작품들이 <그곳에서는 감정을 지닐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델리 소재 Visual Arts Gallery와 모바이 소재 Project 88에서 전시됐다. 이후 같은 해에 코엘료는 스위스 PROGR의 '예술가 해외거주'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베른 Grand Palais에서 <Mapping(Thoughts)>이라는 제목의 솔로 전시회를 열었다. 코엘료는 인도 구르가온 Devi Art Foundation, 덴마크 HEART Herning 현대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등에서 열린 다양한 그룹 전시회에 참여했다. 또한 그의 동영상 작품들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립미술관, 스페인 빌렌시아 현대미술관, 스위스 바젤 Focus 09,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회의 COP15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상영됐다. 코엘료의 작품들은 뉴욕의 '아트포럼', 한국의 '브뤼트', 인도의 '아트 인디아' 및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여러 간행물의 비평란에 실렸다. 코엘료는 영국과 인도에서 다양한 워크숍과 패널 토의와 예술가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오스트리아 ESSL 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그룹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코엘료는 인도 모바이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아무 것도 살아남지 못해
Out there nothing really survives 2009



여러 날 기다렸지만, 희망의 조짐은 없어
We waited for days, but no sign of hope 2009

In 2006, Baptist Coelho received his Masters of Arts and was awarded the "Johnson Prize Fund" from the Birmingham Institute of Art & Design, UK. During this year, he developed his first solo exhibition called *airfedge|air* at the BIAD Gallery, UK. In 2007, Coelho was awarded the "Promising Artist Award" by ART India Magazine and the Visual Arts Gallery, Delhi. In 2008, he was a Guest Editor of New Media Art for "I"; a Visual Arts Quarterly Newsletter, which was produced by the India Habitat Centre, Delhi. Since 2008, the workshop-based, site-specific, mixed-media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called PAPER AIRPLANE PROJECT was realized with participating schools in Mumbai, Ladakh, Switzerland and Thailand.

During 2009, works from Coelho's second solo exhibition entitled *You can't afford to have emotions out there...* were shown in two parts, at the Visual Arts Gallery, Delhi, and at the Project 88, Mumbai. Later that year, he was Artist-in-Residence at PROGR, Switzerland and created the solo exhibition called *MAPPING(THOUGHTS)* at the Grand Palais in Bern. Baptist has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which include: the Devi Art Foundation, Gurgaon; HEART Herning Kunstmuseum of Contemporary Art, Denmark and Gwangju National Museum, South Korea. Coelho's videos have been screened worldwide including: the National Art Gallery, Islamabad; Museo Valenciano de la Ilustración y la Modernidad, Valencia; Focus 09, Basel; UN Climate Conference COP15, Copenhagen and among others. His works have been reviewed and published in: "Artforum", New York; "Brut" South Korea; "Art India"; "Times of India" and other publications. Coelho has also participated in various workshops, panel discussions and artist talks in the UK and India. In 2010, Baptist will be part of a group exhibition at the Essel Museum, Austria. The artist lives and works in Mumbai, India



돌아오게 될지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if I will return 2009



미래 (나의 미래)
Zukunft (meine zukunft) 2009



AIR(TRAVEL) 대한민국 광주 기번크기 | 나뭇잎을 넣고 금속 뚜껑으로 막은 유리병, 메모가 적힌 종이 등 | 2010
AIR(TRAVEL) South Korea — Gwangju Variable size | Glass bottles with metal lids containing leaves, air, with notes on paper, etc. | 2010

AIR(TRAVEL) (2010년, 대한민국 광주)

《AIR(TRAVEL)》는 나뭇잎을 넣고 뚜껑으로 막은 유리병과 메모가 적힌 종이 등으로 이루어진 설치예술이다. 이 작품은 파운드 오브제, 장소, 역사 및 개인적 생각들 사이의 중요하고 섬세한 연결고리들을 한데 모으고 있다. 어떤 시절 전 세계를 여행하며 물건을 수집하던 작가의 취미는 2006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들의 영감이 됐다. 그리하여 《AIR(TRAVEL)》는 다양한 국가의 현지인들과 협력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에서 발생한 시민 봉기를 일컫는다. 이 기간에 시민들은 군부독재에 맞서고자 봉기하여 도시의 치안과 질서를 시민들 스스로 유지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5월 18일에 시작됐다고 해서 '5·18'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날을 기리기 위해 '518번' 버스가 광주 시내 전역의 61개 경유지를 운행한다. 그중 일부 경유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위해 '518번' 버스를 이용하는 광주 시민들은 나뭇잎들을 병에 담고도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자유롭게 적었다. 성명, 날짜, 시간, 온도 등과 같은 세부사항도 기록했다. 이들 타임캡슐은 천장에 걸린 채 전체적으로 숫자 '오일팔'의 형태로 설치된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작품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 공간 사이의 연결고리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게 된다.



벗겨보면 난 인간이다 DVD 루프, 11분 5초 | 2009
Beneath it all... I am human DVD loop, 11 minutes 5 seconds | 2009

벗겨보면 난 인간이다 (2009년)

시아첸 빙하의 영유권을 놓고 1984년 4월 13일부터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시작된 끝 모를 분쟁이 고도 약 5500미터의,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천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섭씨 영하 60도에 이르는 강추위로 인해 병사들의 생활 여건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열악하다.

《벗겨보면 난 인간이다》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관념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동영상에서는 한 시아첸 병사의 군복이 차근차근 그리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벗겨지면서 그의 맨살이 드러난다. 이는 겹겹으로 이루어진 보호 장구 속에 인간의 형태가 있음을, 연약한 한 겹의 피부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피부와 단추가 조심스레 풀리는 장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잔혹한 기후 조건에서 병사 각각이 매일 감내해야 하는 고된 일과를 생각나게 한다. 군복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병사의 신체가 자세하게 노출되며, 이렇듯 단순한 움직임은 분쟁 그리고 병사라는 정체성으로부터의 해방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벗겨벗은 육체는 추위로 인해 이내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그곳에서는 감정을 지닐 수 없어》라는 제목의 종합 프로젝트 중 하나다. 작품의 초점은 병사의 생명이다. 전쟁 기계가 아닌, 분쟁의 일상적이고 복잡 한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한 남자의 생명이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연약함을 지닌 한 병사의 생명 인 것이다.

AIR TRAVEL (South Korea — Gwangju, 2010)

AIR(TRAVEL) (South Korea — Gwangju, 2010) includes glass bottles sealed with air, leaves and various objects; along with handwritten notes on paper. The installation draws together an important and ethereal connection between the inter-relationship of found-objects, location, history and the private thoughts of the individuals. The artist's childhood hobby of collecting tangible objects from around the world was the inspiration for projects that began in 2006. Since then, the project AIR(TRAVEL) has collaborated with local people from various countries and has been developed to reflect unique locations.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refers to a civil uprising which took place in the city of Gwangju, South Korea, on May 18 to May 27, 1980. During this period, citizens rose up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took control of the city. The crisis is often referred to as "5.18", which is in reference to the start of the uprising. To commemorate this event, Bus route No. "518" was created and navigates through the city making sixty-one stops; some of these stops mark the incidents where the uprisings occurred.

For *AIR(TRAVEL) (South Korea — Gwangju, 2010)*, the local people of Gwangju, who use the bus route "No. 518", sealed leaves into bottles and noted a random thought on paper. Details such as: name, date, time location and approximate temperature were also noted. These time capsules are suspended from the ceiling and collectively take form of the numerals 518, in Sino Korean. Upon closer inspection and contemplation, the viewer becomes aware of the connection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andomness of thought, experience and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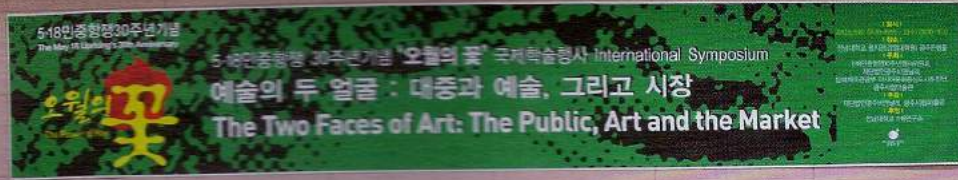


Beneath it all... I am human... (2009)

Since April 13, 1984, the endless conflict between India and Pakistan over the ownership of the Siachen Glacier has been fought at an altitude of around 18,000 feet, which is the highest battlefield on earth. Bitter cold temperatures reaching to -60° Celsius make living conditions unbearable for the soldiers.

Beneath it all... I am human..., explores the notion about what is concealed is often revealed. This video illustrates a Siachen soldier's clothing being systematically and mysteriously removed to reveal his bare body. The act reminds us that beneath the layers of protective gear there exists the human form; an inner layer that is vulnerable. The meticulous unzipping and unbuttoning is reminiscent of the laborious task that each soldier endures daily; in a climate where the brutal weather conditions are life-threatening. During the process of undressing, details of the soldier's body are exposed and this simple act expresses a sense of liberation from the conflict and his identity as a soldier. These contrasts are not without peril; as an exposed body would soon perish in the cold.

Beneath it all... I am human..., is part of the multi-disciplinary project entitled *You can't afford to have emotions out there...*. The focus is on the life of the soldier; not as a machine of war but as a man coping with the day to day complexities of conflict; a soldier with emotions and vulnerabilities like any other human being.



2부 토론: 알레산드라 산드롤리니, 밥티스트 코엘료, 김영호, 알프레도 자, 멜리사 추, 이용우
 Discussion: Alessandra Sandrolini, Baptist Coehlo, Youngho Kim, Alfredo Jaar, Melissa Chiu, Yongwoo Lee